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7월 25일(금)
--(윤력 윤6월 1일)--
Пятница
25 июля 2025 г.
№ 29 (1214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7월의 네번째 토요일 러시아에서 상업 근로자들의 날로 기념한다. 올해 이 기념일은 7월 26일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 구조용 접이식 '브라즈니크' 드론 개발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의 주도에 사할린에서 다목적 무인기 '브라즈니크'가 개발됐다. 이 드론은 지역 모니터링, 물자 수송, 구조 작전 참여 등이 가능하다.

'브라즈니크'는 몇 초 만에 간편하게 펼쳐 작전 준비를 마칠 수 있고, 최대 1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최대 적재 시 약 25분간 공중에 머물 수 있다.

이 드론은 이미 수상 인명 구조, 승무원 후송, 20km 이상 거리의 식품 배송 등에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쳤다. '브라즈니크'의 강점은 완전히 처음부터 설계됐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110시간 이상 비행했으며, 공역 관리와 관련된 시험 임무에 투입 중이다. 개발사는 양산 및 승객 수송 기능 추가를 계획 중이다.

"조국을 위해 섬기다" 전국 캠페인 시작

7월 23일, 러시아 '즈나니예(지식)협회와 '조국 수호자' 국가재단 주최로 전국 캠페인 "조국을 위해 섬기다"가 시작됐다. 이 캠페인은 돈바스·노워로시아 포함 전 지역에서 세대 간 유대 강화 및 청년 애국심 고취를 목표로 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요 역사적 기일에 맞춰 참전 용사 및 특수 군사 작전 참가자와 청년층의 만남이 계획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역사적 영웅 정신의 계승과 조국을 위한 헌신의 의미 등의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캠페인 첫 날, 30개 지역 약 3만 명이 참여했으며, 8월 22일 러시아 국가 깃발의 날까지 계속된다.

코르사코브 만, 두 번째 침몰선 인양 성공

코르사코브 지역에서 수계업체가 또 다른 침몰 선박을 인양했다. 2025년 내에 총 5척의 침몰선을 인양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총 11척의 침몰선을 인양하고, 계약업체는 15,000제곱미터의 수역을 정화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추가로 24척의 침몰선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정화 작업은 해양 환경 안전을 확보하고 사할린 연안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된다.

쿠나시쉬르 섬 러시아 주민들, 일본인 묘지 정비

남쿠릴 열도의 쿠나시쉬르 섬에서 지역 주민들이 오래된 일본인 묘지를 자발적으로 정비했다. 활동가들은 묘지 구역을 청소하고 묘비의 비문을 새로이 복원했다. 이 묘지에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섬에 살았던 일본인 가족들의 조상이 안장되어 있다. 일본 유족들은 해마다 묘지를 찾았지만 2020년 팬데믹 및 일본의 대러 제재 이후 무비자 교류가 중단되자 유족들의 묘소 방문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현지 쿠릴 주민들이 묘지 관리에 나섰다.

사할린 우수 졸업생들, 학업 성과 인정

올해 사할린주는 재능과 열정을 인정받은 졸업생들을 다시 한번 선정했다. 지역 우수상인 '최고 배지'는 매년 명예 디플롬과 함께 100,000루블리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이 권위 있는 상을 받기 위해 11학년 졸업생들은 최근 2년간 전 과목 우수 성적, 국가 최종 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등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히 졸업을 해야 한다. 올해 주내 10개 지방자치에서 51명의 졸업생이 이상을 수상했다. 가장 많은 상은 유즈노사할린스크(27명) 졸업생들이 받았으며,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푸쉬킨 제1급나지야(5명)와 홈스크의 제9중학교(5명) 학생들이 특히 두각을 나타냈다. 작년에는 77명의 사할린 청년들이 이상을 받았다.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사할린주 교육부장관은 "지식 추구와 노력으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졸업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지역 우수상은 그들의 성공을 인정함과 동시에 더 큰 도전과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지식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한 졸업생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 우수상은 성공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발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라며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전했다.

"오스트로와" 전국 청년포럼 참가접수 7월 28일까지 연장

러시아 청년청 플랫폼에서 "오스트로와"전 러시아 청소년 포럼 참가 신청접수를 연장했다.

이번 주초 현재 접수 건수는 약 6,000건이며, 포럼은 14세부터 35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된다.

주최측에 따르면 올해에는 사할린주 각 지자체 청년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홈스크 출신 접수가 가장 많았다. 전국에서 선발된 총 500명(활동적인 청년, 자원봉사자, 전문가)이 포럼에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할린-쿠릴 열도 주요 기업을 방문하며 강연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된다.

2025년 포럼에는 ▲창조 산업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 ▲기후·환경 ▲항공 ▲의료 ▲석유·가스 ▲건설·엔지니어링 ▲광물 채굴 ▲관광·호스피탈리티 ▲예술 ▲과학 ▲스포츠 등 분야가 마련됐다.

포르나이스크, 45가구 노후주택에서 새 아파트로 8월 이주

포르나이스크시에서 8월 중 '40년 ВЛКСМ' 거리에 신축된 5층 아파트 건설이 완공된다. 노후 주택 이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45가구(시 및 인근 마을 주민)가 새 집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포르나이스크 지역 실무방문차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 아파트는 3칸짜리(5가구), 1칸짜리(5가구), 2칸짜리(35가구) 총 45세대로, 모든 세대에 발코니가 설치됐다. 아파트 내부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전기레인지, 운수기, 수도 계량기, 위생 설비, 주방·화장실 자연 배기 환풍기 등이 구비되었다. 방에는 벽지와 장판, 욕실에는 타일이 있다. 건물에는 화재 경보기와 장애인을 위한 설비가 있고, 주변 환경도 정비됐다.

이 아파트와 가스텔로 마을의 6개 2가구 주택 완공은 "2022년 1월 1일 이전 지정 노후주택" 이주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다. 새 주택으로 이주로 45가구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 전역의 노후 주택에서도 이주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21,600명이 새 집으로 이주했으며, 내년 말까지 11,000명 이상의 주민이 추가로 이주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주도의 국가 프로젝트 '삶을 위한 인프라'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정부 자료에서)

새고려신문

2025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다큐멘터리 "토박이" : 8월 12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첫 상영

8월 12일 저녁 7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옥차브리' 영화관에서 사할린 한인 관련 다큐멘터리 "토박이"의 시사회가 개최된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22일 (화)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새고려신문사의 주최로 진행된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하여" 시민들과의 만남에서 영화 감독 도카 안톤과 프로듀서 하 세르게이가 밝혔다. 사할린한인 주제 영화에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80여 명이 모였다.

행사를 진행한 새고려신문사 배워토리아 대표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하여' 기획을 3년여 진행하는 동안 만남의 주인공으로 유명 학자, 시인, 음유시인, 미술가, 화백 등이 출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만남의 주인공으로 "토박이" 다큐멘터리 제작진 - 도카 안톤 감독과 하 세르게이 프로듀서를 소개했다. 두 명 모두 사할린 한인 3세으로 41세의 안톤은 돌린스크지역 브즈코리에 마을 출신이고, 39세의 세르게이는 샤희초르스크의 출신이다. 최근 7년간 이들은 같은 곳 - 사할린 영화여가연합 - 국영기관에서 근무

하고 있는데, 안톤은 기술부 부서장이고 세르게이는 행사 기획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기관 주체 행사를 통해 함께 프로젝트들을 진행해왔다.

2년반 전 도카 안톤은 한인들이 사할린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알고 싶던 차에 세르게이에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해,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안톤은 '30살 전에는 자신을 완전한 러시아인으로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이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는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디선가 들은 얘기는 있었지만, 사실 아는 건 거의 없었어요."라고 안톤 도카는 말했다. 처음에는 40분짜리 영화를 계획했지만, 만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촬영하면서 자료가 많이 수집되어 러닝 타임이 1시간 40분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영화는 지루하지 않다. 사할린 한인 주제를



잘 모르는 시청자 대상으로 테스트 상영이 있었는데 이들의 편집이 역동적이고 구성이 풍부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도카 감독은 "5분마다 새로운 주인공, 새로운 주제가 화면에 나타나서 정신을 놓을 수가 없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제작진은 이 영화는 전체적인 줄거리가 없고 모자이크처럼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만남에서 사진과 비디오를 통해 촬영 현장과 주인공들, 그리고 영화에서 편집된 장면도 소개되었다.

제작진에 따르면 촬영은 사할린, 소치, 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었으며, 영화에는 36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한다. 그 중에는 사할린 역사학 전문가인 아나톨리 쿠진, 올리아 진, 니콜라이 위쉬넵스키, 저명한 한국학 연구자 안드레이 란코브(국민대학교 교수), 사할린한인 연구자 박승의, 사할린 한인들의 편지를 고국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하며 이들의 귀환을 주도한 박노학 씨의 아들 박창규 씨, 그리고 가라후토 시대의 목격자들인 사할린 1세대 몇 분도 있다.

영화제작진은 자신들이 만나본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했고 인터뷰에도 응하고, 서로 연결도 잘 시켜주었다며 협조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했다.

도카 감독은 이 영화에서 시나리오와 촬영 뿐만 아니라 작곡도 했다. 영화 촬영과 제작은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하니 때로는 지치기도 했는데 편집을 하며 수천 번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할머니·할아버지들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가 절로 생겼다'고 했다. 영화에는 여러 문서보관소의 소장물인 희귀한 사진과 영상도 등장한다.

그리고 첫 사할린한인 연구서 '사할린한인'을 쓴 박수호 교수의 본문 내용 일부도 사할린 배우자 감독 리 알렉산드르의 목소리로 전달된다. 이날 리 알렉산드르 감독 역시 만남의 자리에 참석해 이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다.

이날 만남에는 처음으로 영화 트레일러가 상영되어 작품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질문을 해왔는데 가장 뛰어난 질문을 한 세 명에게는 영화 상영 초대권이 주어졌다.

이 자리에서 영화 개봉일과 시간이 처음 공개되었다. 다음 날 2시간 만에 전석 매진 되었다고 하 세르게이 프로듀서가 전했다. "옥차브리" 영화관의 대공연실은 522석 규모이다.

제작진은 첫 상영이 끝난 후 이어 그 자리에서 영화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 영화는 제작진의 자금으로만 제작되었으며, 영화 상영은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이날 만남에서 배워토리아 대표는 새고려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새로운 기획을 소개했다. 이 기획은 다음호에 소개된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 모 저 모

사할린 주민, 전국 금융교육 회의에서 프로젝트 발표

모스크바 중앙은행에서 제11회 전국 금융교육 봉사자 회의가 개최됐다. 사할린 대표로 참석한 워토르 포포브는 정신적 장애인 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는 "이들은 취업 후 개인 자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기 피해자가 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워토르는 강의·실습·쇼핑 체험 등 36개의 수업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현재 이미 섭주민 70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다.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재정적인 것과,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예산을 계획하고, 비용과 수입을 고려하고, 재정적인 안전 쿠션을 형성하는 능력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 집단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라고 워토르 포포브가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포럼 참가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제 워토르는 사할린에서 시작해 다른 도시들로, 그 다음에는 극동으로 프로젝트를 확장할 계획이다. 그는 러시아 은행의 지원으로 확장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Сахалинец представил проект по финансовой грамотности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грессе

В Москве на площадке Банка России провели XI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гресс волонтеров финансов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был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ахалина — Виктор Попов. Он презентовал свой проект, разработанный для помощи людям с ментальными нарушениями. По его словам, такие люди после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сталкиваются с трудностями в управлении личными финансами и часто становятся жертвами мошенников.

Чтобы помочь им, Виктор разработал специ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включающую 36 занятий — с лекциями, интерактивами, практическими заданиями, например, походами в магазин. Курс уже прошли 70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лучен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ставить проект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помогла убедиться, что мы делаем правильные вещи. Улуч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работы по повышению уровня финансовой грамотности. Умение правильно обращаться с деньгами, планировать бюджет, учитывать свои расходы и доходы, формировать финансовую подушку безопасности — неотъемлемая часть жизн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сех социальных групп нашего общества», — поделился Виктор Попов.

Проект получил положительную оценку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Теперь Виктор планирует расширить его сначала на другие города Сахалина, а затем —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еализовать масштабирование он рассчитывает при поддержке Банка России.

RIA Рейтинг, 러시아 가족은 주택구입에 평균 8년 저축하며 사할린 가구는 3년 미만

전문가 조사 결과, 러시아 가구의 평균 주택구입 저축 기간은 8년인 반면, 사할린은 2년 7개월로 조사됐다. 사할린은 60㎡ 주택 구입비 전액을 8년 이내 모을 수 있는 상위 8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무르만스크 주, 한티만시이스크 자치구, 네네츠크 자치구, 야말로-네네츠크 자치구는 상위 첫 4위를 차지한다. 첫 3 지역에 사는 가구는 1년 10-11개월 정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아파트 구입을 위한 금액을 모을 수 있고 야말로-네네츠크 같은 경우에는 2년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속도는 높은 급여와 2 차 시장의 낮은 주택 가격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 순위로는 마가단, 코미 공화국, 추코트카 자치구인데 이곳에서는 가족이 소중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2년 2개월에서 2년 4개월 사이의 여유 자금 (가족당 65,000루블리)을 저축해야 한다.

사할린은 맞벌이부부가 있는 평균 가구 기준 중고주택 구입에는 2년 7개월이 걸린다. 한편 러시아 최장 저축 기간은 평균 9년이라고 전문가들이 언급했다.

RIA Рейтинг: российская семья в среднем копит на квартиру восемь лет, сахалинская — меньше трех

Эксперты составили традиционный рейтинг доступности жилья для жителей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ТОП-8 регионов, где семьи могут собрать сумму целиком, необходимую для покупки квартиры площадью 6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меньше, чем за 8 лет.

При этом четыре верхних строчки занимает Мурманская область, ХМАО, 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и ЯНАО. Семьям, живущим в первых трех, понадобится всего 1 год и 10-11 месяцев, в последнем случае — ровно два года, чтобы приобрести квартиру в своем регионе за собственные деньги. Такую скорость эксперты объясняют высокими зарплатами и низкой стоимостью жилья на вторичном рынке.

Затем в рейтинге упоминают Магаданскую область, Коми и Чукот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здесь семьям понадобится копить свободные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а это 65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семью) от 2 лет 1 месяца до 2 лет 4 месяцев, дабы приобрести заветную жилую площадь.

Наконец, на восьмой строчке значится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реднестатистической семье, где двое взрослых работающих родителей, понадобится всего 2 года и 7 месяцев, чтобы купить квартиру на вторичном рынке.

При этом эксперты упоминают и максимальный срок

накопления — он составляет 9 лет по России в среднем.

<사할린주 최고의 보모> 이름이 7월 말 발표된다

매년 열리는 사할린주 "최고의 보모" 경연 대회 수상자 및 입상자가 7월 말 발표된다. 이 대회는 지역 프로젝트 "사할린의 등대(사할린 마야크)"의 일환으로, 가장 어린 주민들을 돌보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주교육부 보도부가 전했다.

이 대회는 보모, 보조 교원, 미취학 교육 분야 다른 전문가들에게 전문성을 선보이고 경험을 공유하며 동료와 학부모로부터 인정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유아 돌봄 관련 업무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기관, 사회 단체,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한다.

대회는 여러 단계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2025년 7월 23일까지 응모 자료를 제출했으며, 7월 24-27일 전문가 위원단이 서류 심사를 실시한다. 7월 28-31일 결과가 최종 확정되어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Имя «Лучшей нян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ъявят в конце июля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ей и лауреатов ежегодн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Лучшая няня». объявят в конце июля. Он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и помогает поддержать тех, кто ежедневно заботится о самых маленьких жителях област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Конкурс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няням, помощникам воспитателей и друг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дошкольной сферы показать сво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навыки, поделиться опытом и получить заслуженное признание — как от коллег, так и от родителей.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могут все, чья работа связана с присмотром и уходом за дошкольниками. Оценивать участников будет конкурсная комиссия, в которую войд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родитель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Конкурс проведут в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До 23 июля 2025 года включительно участники могли подать свои конкурсные материалы. Затем, с 24 по 27 июля, экспертная комиссия проведет оценку всех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работ.

Итоги конкурса подведут с 28 по 31 июля, тогда же организаторы объявят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ей и лауреатов.

유즈노사할린스크, 첫 롤러스포츠 대회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7월 26-27일 처음으로, 도시 롤러스포츠 대회가 열린다. 4세 이상이면 실력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다. 대회는 26일은 시립공원 "롤러코스터" 근처에서, 27일은 "고르니 위즈두흐" 스포츠관광단지에서 진행된다.

(8면에 계속)

7월 26일은 상업분야 근로자들의 날

사할린·쿠릴 주민 6명 중 1명, 상업·레저 산업 종사

러시아는 매년 7월 넷째 주 토요일을 "상업 근로자의 날"로 기념한다. 이 기념일은 2013년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되었고, 2025년에는 7월 26일에 기념한다. 이 날을 맞아 주농 상업부는 상업을 사할린에서 규모가 큰 분야로 평가하며 러시아 전략발전기구 최근 순위에서 사할린주는 "소비·레저" 부문 전국 7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사할린 상업 분야 종사자는 약 4만 8천 명(취업자 6명 중 1명)이다. 2025년 초 기준 주내 4천여 개 판매 시설이 운영 중이며, 도소매

점 396개소, 소매점 3,755개소, 총 4만 6천 석 수용이 가능한 카페/식당 98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총 5,700여 개 기업·개인 사업자가 활동 중이다.

인구 1만명당 판매 시설 3.1개로 전국 평균보다 7.3% 높다. 연간 거래액은 2,000억 루블리를 넘어 사할린주는 극동 지역 최고 수준이다.

지역 상업망 점유율은 전체의 16%(482개소)에 그치지만, 소형 "집 근처" 매장은 3천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저가형 "에코늄"

매장은 789개소이며, 2030년까지 900개소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 내 109개 장소에 2,400개 매점이 수용 가능한 민속 박물관이 조성됐다. 편의를 위해 시장 일점 확인 앱인 "섬들.65"도 운영 중이다.

또한 70만 톤 규모 물류 창고 396개소가 있다. 최근 쿠릴스크, 노글리키, 오하 등 외딴 지역을 포함해 4만㎡ 이상 신규 창고가 건설됐으며, 이는 최대 3개월 분 식량 비축량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육자 자긍심 되새긴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19일 폐막

46개국 교사들, AI 기반 수업 설계·다문화 교육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큰 호응 이상덕 동포청장 "한글학교, 학생들이 일주일을 기다려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

"교육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되새겼다"는 소감이 한목소리로 모인 '2025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가 7월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수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주최한 이번 연수에는 46개국 234명의 한글학교 교사가 참가했다. 이들은 올해 처음 실시한 'AI 활용 한국어 교수법 워크숍'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상덕 청장이 참석한 이날 수료식은 일주일간의 연수 장면을 모은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지역별 대표 소감 발표, '나에게 한글학교란' 엽서 쓰기 이벤트 우수상 및 행운상 등 다양한 시상식과 수료증 수여, 단체 및 '인생네컷' 사진 찍기 등으로 진행됐다.

마다가스카르 한글학교 김준환 교사는 "이번 연수는 재외동포 정체성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새기고, 세계 각지에서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과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권영남 교사는 "연수를 개최한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모국과의 정교 유대를 깊이 체감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AI 기반 수업 설계와 다문



화 교육 현장 체험은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엽서 쓰기 이벤트에서는 레딩 한글학교 정경선 교장이 '나에게 한글학교는 마을의 공동텃밭이다. 학부모, 선생님, 지역 한인이 함께 재외동포 차세대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터'라는 글을 남겨 우수상을 받았다.

이상덕 청장은 수료식에서 "한글학교는 단순히 한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한국 문화·역사 정체성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어린 학생들이

일주일을 기다려서 가고 싶어 하는 즐거운 주말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일 내린 빗속에서도 모두 건강히 일정을 마치셔서 기쁘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날을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재외동포청은 연수 기간에 각 지역 담당자와 교사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앞으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초청연

수 개회식에는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축사를 보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선생님들의 열정은 우리말의 밝은 미래를 이끄는 빛"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올해 연수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글 교육' 특강을 비롯해 수준별 한국어 말하기·쓰기 교수법 워크숍, 선생님들의 마음 치료를 위한 강연, 수업을 살리는 놀이 교육,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관람 등 총 16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재외동포청 제공)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상한 영혼을 위하여 / 고정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밀동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어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작정하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별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예전에 <객주문학관> 집필실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넉 달 가량. 전업 작가가 된 뒤부터 자연의 품이 그렇게도 좋더라고요. 담양의 <글을 낳는 집>이며 원주의 <토지문학관>을 제 집



드나들 듯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릴 때였습니다. 흙 냄새를 맡고, 대지를 적시는 빗소리를 들어야 뭔가 제대로 된 글이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한국문학이라면 오태석의 <자전거>, 박경리의 <토지> 등에 열광했을 때였으니. <객주>는 호텔처럼 시설도 훌륭했지만, 집중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건 꾀개일 수 있겠지만, 마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안동이면, 안동, 수줍은 듯 얼굴을 드러내는 것만큼 구불구불한 길 위에 펼쳐지는 청송, 강구 바닷가 등이 정말이지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한가했던 실내 수영장이 기억나네요. 미주구리 회 한 사라(접시)에 막걸리 서너 잔 마시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던 시절이었습니

다. 에라 모르겠다, 결국 글은 글이고, 어차피 글은 이제 평생 써야 할 노릇 같으니, 그렇다면 사진이라도 한 장 근사한 걸 남겨보는 것도 좋겠다, 나중에는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좀 대책이 없는 편이긴 하죠. 마침 장마철을 맞아, 매일 쏘다니던 반변천에 물이 불기 시작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만 있자니 뭔가 굉장한 미장센이 잡힐 것만 같았거든요, 아무튼. 그 뒤로, 저는 새벽 일찍 알람을 맞춰, 매일 해 뜨기 전, 그 반변천 다리 위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장대비를 버텨낸 보리밭을 관찰하려고요. 파릇파릇한 보리밭이 언제든 반변천으로 떠나려갈 것처럼 보였거든요. 보름 남짓 꾸준히 새벽녘 카메라를 들고 달려간 덕에, 결국 저는 제가 원하는 어떤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절반은 물에 잠겨 축대밭이 되었지만, 절반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머리를 꼳꼳이 세운 채, 살아남았던 보릿대들을 잡아냈던 거지요. 몽클한 마음에 연신 눈물을 흘리며 DSLR 버튼을 눌렀던 기억입니다. 이제는 소중한 분들에게 그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종종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요 근래 미친듯한 폭우로 비 피해가 끔찍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비 피해 소식은 난생 처음입니다. 위로의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시의 힘을 믿고, 시인의 시선을 건넵니다. 당장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 잡을 손 하나'를 떠올리십어 떠실지!"

(서울에서 허진원)

사할린동포·탈북민 등에 공공임대 재공급 주택 입주 자격 완화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사할린 동포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재공급 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

공공임대 재공급 주택이란 최초 임대 공급 이후 미임대 상태이거나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사업자에게 명도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업무처리지침(훈령)을 개정해 전발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의 경우 대부분 연고가 없어 입국 즉시 입주가 필요하지만, 국적 취득에 최소 7개월이 소요되는 규정 탓에 적기에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국토부 훈령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으로 추천받은 사할린동포는 재공급주택 최초 입주 시 국적 취득 및 입주 자격 검증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탈북민의 경우에는 약 12주 동안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기간에 국적 취득은 가능하지만, 입주 자격 검증에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려 제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일부로부터 추천받은 탈북민은 재공급 주택

최초 입주 시 입주 자격 검증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자인 자립준비청년이 재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에 입주하려면 입주 자격 검증에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려 적기에 공급받기가 곤란했다.

그러나 이제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립준비청년이 재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다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약 2주가 소요되는 무주택 요건만 검증받으면 된다.

국토부는 "긴급 주거 지원 필요 계층의 적기 입주 지원을 위해 재공급 주택 최초 입주 시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청·통일부·여가부·복지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훈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공급이 아닌 신규 공급 주택에는 이런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국토부는 재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할린동포·탈북민·자립준비청년이 재계약할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상 재계약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ак Но Хак — «Зарубежный кореец месяца» (июль 2025)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재외동포청) присудило звание «Зарубежный кореец месяца» Паку Но Хаку — первопроходцу в деле возвращ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и бывшему председателю Ассоциации возвращённых из Сахалина корейцев в Японии.

Пак Но Хак родился в 1914 году в Чхунчжу и в 1943 году был насильственно мобилизован на Сахалин япо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н оставался в состоянии безгражданства и жил в изоляции на Сахалине. Он вступил в брак с японкой, в 1958 году переехал в Японию и посвятил оставшуюся жизнь борьбе за пра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тав голодом тех, кто десятилетиями оставался забытым.

Понимая, насколько болезненно разлука с семьёй, он стал настоящим «почтальоном надежды»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Пак Но Хак по собственной инициативе передавал письма, написанные на Сахалине, родственникам в Южной Корее. Благодаря его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и и вере в человеческую связь, за 30 лет он с сыном передал более 30 000 писем. Среди сахалинцев ходила фраза: «Если попросит Пака Но Хака, он поможет найти семью». Слух об этом быстро разнесся сред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число отправителей писем очень



быстро росло.

Даже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возвращение на родину казалось невозможным, он неустанно добивался встреч разлучённых семей, обращаясь к японским и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олитикам, журналистам, правозащитникам. Именно благодаря таким усилиям сегодня действу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продолжение тех первых, частных инициатив.

(Материал предоставлен Агентством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еревод с корейского Тен Жанна)

Премьера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о генерале Хон Бомдо состоится 13 август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честь 80-лети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выходит важная кинолента —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Арм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незавершённая война», рассказывающий о жизни и борьбе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до и истории вооружённого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и.

Премьера состоится 13 августа 2025 года, накануне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광복절).

Режиссёр — Мун Сын Ук.

Закадровый голос — актёр Чо Джин Ун, участник миссии по возвращению останков Хон Бомдо в 2021 году и амбассадор Мемори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до.

Фильм создан при поддержке Ассоциации Кванбокхве и Мемори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а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до, а главное — на пожертвования самих людей, неравнодушных к сохранению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Вклад в создание фильма внесла и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КРК), а также

отдельные её члены, для которых имя Хон Бомдо имеет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Это не просто фильм о судьбе одного героя, а рассказ о целой эпохе вооружённой борьб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против колониального угнетения. В центре сюжета — генерал Хон Бомдо, но за ним стоят тысячи таких же, как он, бойцов, сражавшихся за свободу.

В тизере звучат важные слова:

«Армия Хон Бомдо — это армия не ради короля и знати, а ради простого народа. В его отряде царило равенство, и он сам всегда был на передовой».

АКРК с особым вниманием следит за этой премьерой. Генерал Хон Бомдо — не только герой Кореи, но и гордость корё-сарам, связующее звено между нашей историей и настоящим.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фильм станет поводом к диалогу, памяти и новому признанию вклада наших предков в дело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Источник: АКРК)

«Местные»: Премьера фильма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2 августа



12 августа в 19.00 в кинотеатре «Октябрь»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ится премьерный показ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Местные». О дате и формате премьеры создатели картины Антон Дока и Сергей Ха объявили на встрече с сахалинцам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22 июля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проект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гостиницы «Гагарин».

Несмотря на отпускной сезон, собралось более 80 человек — рекордная посещаемость для проекта.

Ведущая,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иктория Бя, представила гостей и попросила рассказать о себе.

Герои встречи — коренные сахалинцы. Режиссер, оператор, сценарист фильма Антон Дока (41 год, родом из Взморья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всегда тяготел к творчеству. Работал звукорежиссером в Чехов-центре, последние 7 лет возглавляет отдел техническ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инодосуговом объединении. Здесь он познакомился с Сергеем Ха, продюсером «Местных». Сергей (уроженец Шахтерска) отвечает в Объединении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мероприятий и связь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до этого 10 лет работал в телекомпаниях АСТВ.

Именно на фестивалях, которые проводит или поддерживает Объединение (включая фестиваль музыкальных клипов «Отклик» и любительский сахалинцам кинофестиваль «Край света»), зародилось их твор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ва с половиной года назад Антон предложил Сергею: «Давай снимем фильм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Антон говорит, что до 30 лет «вообще считал себя русским», а уже после стал задумываться о корнях, об идентичности.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идея фильма родилась из личного любопытства.

«Что-то где-то слышал, но фактически мало чего знал», — признается Антон Дока.

Изначально планировали 40-минутный фильм, но собранный материал увеличил хронометраж до 1 часа 40 минут. Но фильм не затянут. Тестовый показ зрителям, не знакомым с

темой, подтвердил: монтаж динамичен, фактура насыщена. «Отвлечься невозможно — на экране каждые 5 минут новая тема», — отмечает Антон. Как признаются авторы, в фильме нет общей канвы, он выстроен мозаично.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зрителям были показаны тизер фильма и рабочие моменты съемок.

Съемки проходили на Сахалине, в Сочи, Южной Корее, Казахстане и Узбекистане; в фильме 36 героев. Среди них — историки Анатолий Кузин, Юлия Дин, Николай Вишневский; известный кореевед Андрей Ланков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Кукмин, Сеул); исследователь Пак Сын Ы; сын первопроходца в деле возвращ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



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Пак Но Хака, помогавшего переправлять письм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родину; свидетели эпохи Карафуто. Авторы подчеркивают: все, к кому они обращались, были открыты, давали интервью и охотно делились контактами, что помогало находить новых героев.

Музыка к фильму — авторская, ее написал Антон Дока. Широко использованы архивные фото и видеоматериалы, включая редкие кадры, отсутствующие в сахалинских архивах. Закадровый текст, основанный на книге Бок Зи Коу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в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темы, 1993 г.), озвучил актер и режиссер Александр Ли, также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й на встрече.

Такж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мьера трейлера фильма, давший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масштабе работы. Были выбраны три автора лучших вопросов. Призом стали приглашения на премьеру.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после встречи в течение двух часов все билеты были уже забронированы. В большом зале кинотеатра «Октябрь» 522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а.

Сразу после премьеры в зале состоится сессия вопросов и ответов, где можно будет обсудить фильм, сообщили создатели фильма.

Отметим, фильм создан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 личные средства авторов, а премьерный показ — бесплатный.

На встрече также был анонсирован новый проект «Сэ коре синмун» совместно с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корейцев. Читайте об этом в следующем номере газеты.

Наш корр. Фото: Ли Е Сика

Российские 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ученые разработали биоморфных роботов, способных имитировать органы чувств человека

В Юж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разработали биоморфного робота с очувствленными конечностями. Ученые использовали микросхемы, которые выполняют функции, ранее доступные только человеку. Например, такие системы могут воспроизводить тактильное восприятие, включая определение температуры, плотности и текстуры объектов.

Данный проект объединил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и реализуетс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российских 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учёных:

руководителя лаборатории «Нейромена», заведующего кафедрой радиотехнической электроники и нанoeлектроники Юж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ладимира Смирнова (первое фото);

— профессора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кук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Бэ Хо (второ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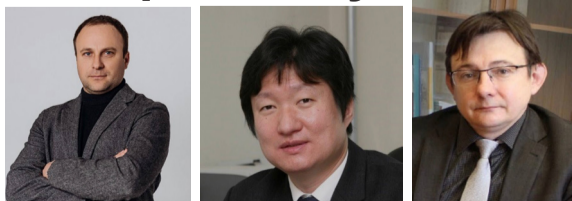


фото), являющегося одним из основателей науч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по исследованию нейроморфных структур;

— профессора Нижегоро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Лобачевского Виктора Казанцева (третье фото), эксперта в таких областях, как нелинейная динамика, вычислительная нейробиология, нейротехнологии, математическая биология.

Новая технология в перспективе может быть применима в спасательных операциях и протезировании.

(https://t.me/saramkor)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Шесть регионов РК объявлены особыми зонами бедствия

22 июля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объявил шесть регионов в центре и на юге страны особыми зонами бедстви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основании оценки ущерба, проведённой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ей, такой статус получили уезд Капхён-гун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город Сосан и уезд Есан-гун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он-Намдо, уезд Тамян-гун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а также уезды Санчхон-гун и Хапчхон-гун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приложить все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жители пострадавших районов смогли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вернуться к обычной жизни. Статус особых зон бедствия предполагает оказание пострадавшим регионам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из бюджет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собий и льгот местным жителям, включая отсрочку по кредитам и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Проливные дожди, которые не прекращались с 16 по 20 июля, стали причиной наводнений и оползней,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погибли по меньшей мере 19 человек.

Президент РК посетил пострадавший регион

21 июля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осетил уезд Санчхон-гун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один из районов, наиболее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проливных дождей. Он лично обошёл участки, где произошли оползни и были разрушены объекты, и посетил центр помощи пострадавшим. Обращаясь к жителям уезд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обещал сделать всё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прошло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Затем Ли Чжэ Мён провёл совещание с министро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Юн Хо Чжуну, губернатором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Пак Ван Су и другими должностными лицами.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выплат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мощи пострадавшим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разрушенных объектов. Президент выразил благодарность сотрудникам, задействованным в поисковых и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х работах.

В РК начался приём заявок на получение денежных ваучеров

21 июля в РК начался приём заявок на первый этап денежных выплат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частного потребления и стабилизации экономик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ём заявок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по 12 сентября как в онлайн, так и в офлайн-формате. Все граждане страны имеют право на первоначальную выплату в размере не менее 150 тысяч вон (110 долларов) на человека. Члены семей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и неполных семей имеют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300 тысяч вон (220 долларов) каждый, а наименее обеспеченные жители страны с доходом менее 30% среднего - по 400 тысяч вон (290 долларов) каждый. Проживающие вне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получ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30 тысяч вон, а жители регионов, где наблюдается резкое сокращ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 50 тысяч вон. Ваучеры будут выдаваться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после подачи заявки. Их можно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до 30 ноября.

Фильм Пак Чхан Ука приглашён на фестиваль в Венецию

Новый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Пак Чхан Ука «Ничего не поделаешь» приглашён в конкурсную программу 82-го Венециа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который пройдёт с 27 августа по 6 сентября. «Ничего не поделаешь» - триллер с элементами чёрной комедии. Он повествует о талантливом химике, который теряет работу, и, чтобы прокормить семью, становится серийным убийцей. Для Пак Чхан Ука это уже второе приглашение в конкурсную программу Венециа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В 2005 году его финальный фильм трилогии о мести «Сочувствие госпоже Месть» получил три неофициальные награды: «Молодой лев», премию за лучшие инновации и премию «Кино будущего». Венециански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входит в тройку самых престижных в мире, наряду с Каннским и Берлинским. В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е фестиваля этого год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21 фильм.

38 North: Радиовещание на КНДР сократилось на 80%

Согласно анализу, опубликованному 22 июля на американском интернет-сайте 38 North, ежедневный поток информации с иностранных радиостанций, транслируемых на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ократилс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началом года почти на 80%. В частности, американские радиостанции сократили вещание с 415 часов в сутки в начале года до 89 часов. Из-за того, что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ликвидировал Американ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глобальным медиа, прекратили работу радиостанции «Голос Америки» и «Радио Свободная Азия», а также радиостанции, принадлежащие спецслужбам РК, включая «Голос народа», «Эхо надежды», K-News и «Радио Свободная Корея». В результате сокращений на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ещают только пять иностранных радиостанций по сравнению с 11 в начале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используемых частот сократилось с 25 до шести.

RKI

Архиепископ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Феофан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Игорь Ким посетили КНДР

С 18 по 21 июля 2025 года состоялся визит архиепископа Корейского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Феофана (Алексея Кима) и круп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бизнесмена Игоря Кима в столицу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 поездке такж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секретарь Патриарха Московского и всея Руси протоиерей Дионисий Казанцев и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ы Всемирного рус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ора Сергей Рудов.

В ходе визита прошла встреча членов делегации с Чрезвычайным и Полномочным послом России в КНДР Александром Мацегора.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обсуждалось участие сотрудников Посольства РФ в жизни единственного православного храм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 Свято-Троицкого храма в Пхеньяне. В связи с 70-летием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архиепископ Феофан (Алексей Ким) вручил послу России Александру Мацегора орден РПЦ благоверного князя Александра Невского III степени.

20 июля 2025 года архиепископ Феофан совершил в Свято-Троицком храме в Пхеньяне литургию, в которой такж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протоиерей Дионисий Казанцев, иерей Владимир Чжан, диакон Павел Пак и диакон Георгий Юн. За богослужением молились сотрудники российског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и гости столицы КНДР. По окончании богослужения архиепископ



Феофан тепло приветствовал прихожан, поблагодарил их за усердное участие в жизни Свято-Троицкого храма.

Росси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также возложила цветы к монументу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посетила кладбище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в Пхеньяне, где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заупокойная литургия по павшим советским воинам, похороненным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е.

(<https://t.me/saramkor>)

Поездки на Север могут возобновиться

Сеул, 22 июля – ИА РУСКОР. Южная Корея рассматривает различные меры по снижению напряженности и улучшению отношений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заяви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в ответ на сообщение о том, что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решения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оездок на Севе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зрабатывает и проводит политику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снижени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улучш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рамках этой политики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различные меры», — говорится в пресс-релизе министерства. Такая реакция последовала за сообщением ежедневной газеты Dong-A Ilbo о том, чт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Ли Чжэ Мёна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возобновления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оездок на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качестве козыря для возобновления диалога с Пхеньяном. Газета сообщила, что Ли упомянул эту идею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последствии начало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проверку на предмет осуществимости и других вопросов. По словам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ого чиновника, проверка будет «долгосрочной».

Поездк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которые когда-то были символом межкорейского примирения, были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в 2008 году, когд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олдаты застрелили южнокорейскую туристку во время ее посещения курорта Кымгансан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Пхеньян заявил, что она проникла на закрытую военную территорию.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 Бён Сам заявил на брифинге для прессы, что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поездк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которые оплачиваются по факту, не нарушают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страны.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запрещают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финансовых услуг, в том числе крупных денежных переводов, которые мог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запрещенному развитию ядерных и ракетных программ. После снятия ограничений на пересечение границы, введенных из-за COVID-19, и возобновлени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и авиасообщения с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хоже, стремится привлечь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чтобы заработать столь необходимую иностранную валюту. В начале июля страна открыла пляжный курорт Кальма в городе Вонсан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Миллионы безработных с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м дипломом

Сеул, 20 июля – ИА РУСКОР. Недавнее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казало, что 4,06 миллиона выпускнико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относятся к экономически неактивному населению, то есть они не работают и не ищут работу. Эта поразительная статистика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каждый четвертый экономически неактивный человек имеет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Кроме того, данные показывают, что 32%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34 лет с опытом работы — всего 2,2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 потратили больше года на поиски работы. Вызывает тревогу тот факт, что 20% этой группы, или 1,33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искали работу более двух лет.

Эти цифры указывают на острую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масштабных реформах в сфере труда и образова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лучить постоянную должность в крупной компании —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ая цель среди выпускников университетов — становится все сложнее. Многие выпускники оказываются в ловушке: они снова и снова подают заявки на вакансии и получают отказы, из-за чего некоторые вообще прекращают поиски работы. Хотя часть экономически неактивного населения не работает из-за физических или психических ограничений, обязанностей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или домашних дел, есть еще 2,37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просто отдыхают» без какой-либо конкретной причины. Эта ситуация обнажает серьезные недостатки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ая выпускает избы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тудентов, и рынка труда, который не может их трудоустро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в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ях, о которых так мечтают молодые люди, сокращаются. Поскольку навыки выпускников университетов отстают от темпов развития технологий, крупные компании значительно сокращают открытый набор новых сотруд-

ников, отдавая предпочтение найму на разовой основе опыт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Жесткая систем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еще больше усугубляет проблему для выпускников университетов. Поскольку уволить постоян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практически невозможно, а система оплаты труда, основанная на стаже, гарантирует ежегодное повышение зарплат, компании неохотно нанимают новых постоян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Чтобы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занятости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йти от системы оплаты труда, основанной на стаже работы, к системе, основанной на должностных обязанностях или результатах работы. Однако прогресс в области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и трудовых отношений остается незначительным.

Рост числа высокообразованных, но экономически неактивных людей связан с переизбытком студентов и низким качеством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что приводит к значительному несоответствию между спросом и предложением на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ую рабочую силу. Реформирование университетов и приведе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е с потребностям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меют решающее значение. Однако усилия по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университетов и корректировке квот на поступление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часто наталкиваются на сопротивление внутри академиче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Хот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Юн Сок Ёля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определила трудов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и пенсионные реформы в качестве основ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иоритетов, ни одна из них не была реализована эффективно. Если такая ситуация сохранится, число «бездельничающих выпускников университетов» будет расти, что создаст все большую угрозу дл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социальн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страны.

Более 70 студентов-медиков со всей России приступили к работе на Сахалин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22 июля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отряда «Галиотис»,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ошли 74 студента-медика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з 18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Сахалинской, Амурской, Иркутской, Новгородской, Тюменской, Воронежской, Орловской, Кировской, Астраханской, Самарской, Смоленской, Волгоградской, Рязанской и Кемеровской областей, а также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и Пермского краев, Республики Мордовии и города Москвы.

Трудовой проект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реализу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СО.

— Сегодня мы проводим торжественную церемонию открытия и даем официальный старт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проекту «Галиотис». Ребята прибыли к нам 10 июля и проработают до 25 августа. Есть те, кто приезжает не первый раз и заинтересован в возвращении. Пока они учатся, у них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и рассматривать в дальнейшем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езда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Отмечу, чт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РСО единственное, кто организует медицин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 отметил Никита Пушко,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их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13 ординаторов, 43 средних и 18 младших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будут трудиться в 16 учреждения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каждым годом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растёт, а условия оплаты труда становятся все 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и. Работа студентов-медиков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вает кадровый резер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гиона. Каждый получит уник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богатым культурным наследием острова, а также с условиями труда и мер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За три года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осетили десятки студентов — будущих врачей. Они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сравнивать условия работы медиков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У нас уже трудятся медики — бывшие участники студотряда. Они вернулись,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созданы отлич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начала карьеры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ы помогаем решить жилищный вопрос, выделяем подъёмные и разрабатываем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план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В учреждениях ежегодно обновляется медицин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это даё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В бытовых вопросах тоже помогаем — с записью в детский сад или в школу,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супругов. Наша задача — создавать условия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оста и комфортной жизни наших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 отметила Марина Аглиулин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прошло вручение путёвок для работы в составе проекта, творческие выступления,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участниками, а также прозвучали напутственные слова от руководителей, наставников 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Артур Юмакаев врач-стажёр, в будущем анестезиолог-реаниматолог.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прибыл из Республики Мордовии. Будущий врач уверен, что опыт работы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едицинском учреждении способствует 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росту. К тому же, у молодого врача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общаться с коллегам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В дальнейшем, они смогут общаться и обмениваться опытом.

— Когда на собеседовании XIII Школы ВСТП в Москве в этом году мне задали вопрос: «Какой проект хочется взять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 — я ответил без малейшего сомнения: «Галиотис,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ных вариантов мною не рассматривалось. Для меня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выехать и получить опыт работы врачом-стажером анестезиологом-реаниматологом, так как именно этот проект стал первым, кто начал принимать на практику ординаторов, которыми я сам и являюсь. А про невероятную природу, историческую ауру и уникальные ландшафты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бесконечно: тихое океанское побережье, действующие вулканы, сивучи, суровое Охотское море, руины японских храмов, мыс Анива со знаменитым маяком, даже добраться до Сахалина — это уже целое приключение. Сахалин не оставляет равнодушным. Это редкий шанс пережить уникальный опыт! — отметил Артур Юмакаев, мастер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отряда «Галиотис».

Российские студенческие отряды — крупнейшее трудовое движ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ёжи. С 1959 года школу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прошли более 20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В 2024 году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их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трудилось более 400 тысяч студентов и школьников из 85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свой первый трудовой опыт, достойн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и внесли значим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траны.

Сахалин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студенческих отрядов начало возрождаться в 2022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реализует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ёжь и дети».

Чтобы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движению РСО, бесплатно обучиться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рабочим профессиям и трудоустроиться на масштабные проекты не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но и за рубежом, достаточно заполнить простую форму на сайте трудкрут.com или позвонить в кол-центр РСО по номеру 8 800 770 01 17.

Более 100 студентов со всей России приступили к работе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1 июля в малом зал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водног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сервисного отряда «Первый рассвет», который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реализу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10 июля по 10 сентября 118 молодых людей из Республики Башкортостан, Татарстан, Чуваш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Томской, Сахалинской и Новосибир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мского края и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 качестве официантов, мойщиков посуды, уборщиков, консьержей, горничных, рабочих ландшафтного дизайна, помощников повара, продавцов-кассиров и бариста.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включала вручение путёвок для работы в составе трудового проекта, а также лучших творческих номеров и напутственные слова от руководителей, наставнико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ботодателей.

—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е «Первый рассвет» даёт студентам уник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освоить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профессии в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окунуться в неповторимый колорит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и стать частью масштабн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студенчества. Это не просто практика — это мощный инструмент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и формирования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готовых развивать туризм 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на самом восточном рубеже нашей страны,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ожепёнок.

Помимо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у участников предостаточно насыщенная культурная жизнь, включающая в себя экскурсии по острову, знакомство с национальным колоритом и конкурс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 итогам которой будет определен лучший сервисный отряд.

— Многие привыкли к клишированному восприятию «Сервис = Черное море» и каждый год наше направление открывает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рушения данного стереотипа и расширения стандартов. Первый рассвет — это проект, который второй год даёт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развит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творческих,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и социально-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качеств участников, погружая их в рабочую среду на невероятно красивых просторах нашей необъятной родины. Я уверен, что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подарит много новых воспоминаний, раскроет потенциал и даст дальнейший вектор развития, — поделился Сергей Перминов, комиссар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водног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сервисного отряда «Первый рассвет».

Об успешном опыте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можно утверждать, когда участники предыдущих лет снова выбирают провести трудовое лето в его составе. Богдана Петрова из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победитель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командир» ВСССерво «Первый рассвет» 2024 года, делится своим опытом:

— Возвращение на проект — мой осознанный выбор, основанный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ысокими стандартами и условиями работы, безупреч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мероприятий. Оперативное решение любых возникающих вопросов и проблем со стороны организаторов и штаба проекта создало атмосферу уверенности и комфорта ещ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А живописный остров, гармонично сочетающий элементы цивилизации и дикой природы, оставил в моей душе незабываемые впечатления и стал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стимулом для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я о том, как провести это лето.

Чтобы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движению РСО, бесплатно обучиться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рабочим профессиям и трудоустроиться на масштабные проекты не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но и за рубежом, достаточно заполнить простую форму на сайте трудкрут.com или позвонить в кол-центр РСО по номеру 8 800 770 01 17.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на трасс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завершится в июле

Дорожный вопрос подня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заседани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Центре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сообщили, что ремонт дорог возглавил рейтинг тем, по которым чаще всего поступают обраще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За прошедшую неделю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задали 147 вопросов о сроках дорожных работ и их качестве.

—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я специально задаю острые вопросы. Мы выпускаем эти обсуждения в публичное поле. И дальше я читаю комментарии, которые пишут люди под постами в моих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Если люди реагируют одобительно, значит, дело сделано хорошее. Если начинается недовольство, комментарии, что все обман, значит, необходима работа над ошибка-

м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опрос ремонта дорог — один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Необходимо следить, чтобы работы шли в графике и строжайше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качество, чтобы мы не получали гневные отзывы разочарованных автомобилистов и пешеходов.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сегодня —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на федеральной трасс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Специалисты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обследовали трассу и обнаружили 64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различных дефектов полотна. На сегодня 48 тысяч из них уже исправлены. Остальной объем должны завершить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Сегодня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продолжается на федеральной дороге в границах Долинского и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Трассу обследовали, в том числе с помощью беспилотников.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дроны снова вылетят, чтобы удостовериться, что работа над ошибками выполнена.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повышенные требования ввели к качеству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дорог. Сначала проверяют состав асфальта, соблюдение технологии его изготовления и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Далее контролируется выполнение работ на всех этапах — от подготовки места ремонта до укладки и уплотнения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й смеси. Губернатор регулярно выезжает на дорожные объекты и общается с подрядчиками, чтобы лично убедиться в надлежащем качестве ремонта.

Традиционно множество обращений к главе региона затронули одну из глав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артери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проспект Мира, который сегодня расширяют до четырех полос в юж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Масштабн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тормозит большой поток машин, следующих за город.

Как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уже в июле должны открыть проезд по всем четырем полосам в грунтовом исполнении. Весь участок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5,7 км разбит на четыре этапа.

— Завершены земляные работы по четвертому этапу — от улицы Ивана Куропатко до поворота на трассу Лиственничное — Охотское. Приступили к регенерации грунта. Мы планировали начать эти мероприятия в августе, но вы, Валерий Игоревич, поручили разработать опережающий график. Поэтому в августе планируем приступить уже к устройству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го покрытия. Активно развернуты работы и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 на участке от улицы Фархудинова до Куропатко. Задействовано 97 единиц техники, 180 человек. Уже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должны завершить земляные работы и перейти к стабилизации грунтов, — долож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транса.

На Сахалине апробировали сценари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беспилотников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и пяты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сборы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роботизированных модульных систем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мониторинге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Участникам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технологии мультиспектрального анализа состояния посевов, лазерного сканирования мелиоративных каналов, а также опыт проведения авиационных работ с помощью беспилотников.

Организатором целого цикл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сборов для разных отраслей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ыступил науч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центр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вопросам оперативной оценки состояния земель и инструментам полевого мониторинга, позволяющего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получать актуальные данные. Демонстрация и обсуждение сценариев применения БАС на открытой площадке позволили участникам на практике оцен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решений.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деляе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регионе.

По его инициативе в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ет комплексная система мер, охватывающая более 40 направлений поддержки, разработанных в рамках политики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я. Система регулярно обновляется с учётом новых задач и потребностей отрасли.

— Проведение таки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сборов — важная часть нашей работы. Науч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центр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азвитии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как одного из ключев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для цифровизации, повыш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 устойчивости 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ях, в том числе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НПЦ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Виктор Грицаенко.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интерес к беспилотным системам в аграрном и природоресурсном секторах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Это связано с их реальной пользой, экономией ресурсов и удобством применения в регионах со сложными условиями и удаленными территориями.

— Хочется внедрить полученный опыт в своём регионе и продолж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науч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м центром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 поделилась главный специалист отдела инвестиций, развития экспорта и кадровой 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Разинькова Елизавета.

Науч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центр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к расширению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содействию внедрению беспило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других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낮선 땅 러시아에서 28년... 한글 · 한국문화 씨앗 심어요"

백경숙 아르센예브 한글학교장 "한국어 교육은 제 소명" 국영 유치원과 함께한 실험... 러시아서 유일한 협력 모델

(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이자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한 재외동포청 주최 '2025년 한글학교 교사 연수'에 참가한 백경숙(66) 아르센예브 한글학교 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8년간 러시아 연해주 여러 지역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온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 한글학교 설립 과정부터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꿈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아르센예브 한글학교는 처음부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태동했다.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의총영사관이 학교 설립을 지원했고, 아르센예브시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에서 그를 교장으로 추대했다. 러시아 국적자이자 러시아 현지 교사 출신으로 현지인 남편을 둔 백 교장이 학교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였다.

이 학교의 가장 독특한 성과 중 하나는 국영 유치원과 협력이다. 현재 이 지역 국영 유치원 4개 반, 약 100명의 유아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러시아 전역에서 유일한 한국어 특화 유치원이다.

"설 행사에서 한복 입기, 세배, 한국 전통 놀이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유치원 원장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정식으로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죠."

흥미로운 점은 한글학교 청소년반 학생들이 이 유치원 수업에 '실습교사'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백 교장은 "책임감을 느끼며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고, 자신감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매년 여름 열리는 '한국문화 체험 캠프'는 2년 이상 한국어를 배운 청소년반과 동포 성인반이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행사다. 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의총영사관과 한국교육원,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연해주 한인회 등에서 지원·협조로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게 한다.

백 교장은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때 동포대표로 동포간담회에서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당시 '한국의 사위, 러시아의 며느리'로 소개되며 주목받기도 했다.

백 교장의 활발한 활동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 신문과 TV 방송을 통해서도 널리 소개돼 한국을 알리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는 "총영사관에서도 언론 보도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둘로 갈라져 있던 아르센예브시 고려인협회가 한글 학교를 통해 하나로 뭉쳤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연해주 한인들과 영사관, 교육원, 한국 지인들로부터 가구와 소장품을 기증받아 유아 눈높이에 맞는 한국문화 박물관을 국영유치원에 개관했다.

백 교장은 "한국의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걸어왔다"며 "때론 눈물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한글을 쓰고, 한국어로 말할 때면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글학교 운영은 교육뿐 아니라 지역 내 관련 기관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백 교장은 한글학교 우수 운영



지난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백경숙 러시아 아르센예브 한글학교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 07. 15. pbyeonsoo@yna.co.kr

사례로 선정돼 17일 46개국에서 온 234명의 한글학교 교사 앞에서 노하우를 공유한다.

그는 32세 때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며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했다. 1년 만에 회복 후 제2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아교육, 사회교육학,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했고, 사회심리상담사 자격도 갖춰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한글학교 운영에 쏟아부었다고 한다. 내가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최선을 다하자는 게 신념"이라고 전했다.

백 교장은 재외동포청이 7월 '이달의 재외동포'에 사할린 동포 모국 귀환에 앞장선 박노학 선생을 선정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매달 모국 발전에 기여한 재외동포들을 기리는 사업은 700만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인터뷰를 끝내며 백 교장은 조심스럽게 소망을 밝혔다.

"우리 한글학교만의 교실,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포 아이들과 러시아 아이들이 함께 안정적인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한·러 우정문화원'을 만드는 것이 여생의 마지막 꿈이에요."

K-푸드의 정점 '라면'의 기원은 日, 중일전쟁 통해 '중국의 납면' 접해1963년, 우리나라 토종 1호 라면 탄생

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로, 그 기원은 중국의 전통국수인 '납면(拉麵)'에서 시작되었다. 납면은 밀가루 반죽을 늘려서 만든 국수로, '끌어당겨 만든 면'이라는 뜻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수타자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전투 시 비상식량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일본은 중일전쟁을 통해 중국의 납면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인스턴트 라면이 발전하게 되었다. 라면(拉麵,문화어: 꼬부랑 국수, 영어: instant noodles, instant ramyun/ramen)은 국수를 스프, 건더기 등을 함께 끓는 물에 넣어서 요리하는 국수 형태의 인스턴트 식품이다. 건면 블록은 원래 조리된 면을 튀겨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여전히 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건조국수 블록은 서양 국가에서 선호된다. 건면블록은 먹기 전 삶거나 끓는 물에 담가두도록 고안된 것이다.

중국 국수 스프를 일본식으로 변형한 라면은 일부 일본 제조업체에서 인스턴트 국수 맛을 나타내는 설명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미국에서 모든 인스턴트 국수 제품의 동의어가 되었다. 현대적인 의미의 인스턴트 라면은 1958년 8월 25일 안도 모모후쿠(安藤百福, 1910~2007)가 개발했다. 당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심각한 식량 문제를 겪고 있었다. 안도가 설립한 닛신식품(日清食品)이 국수 면발에 간단한 양념 국물을 섞은 아지스케면(味附麵)을 '끓는 물에 2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판한 것이 라면의 시초다. 제품명은 치킨라멘. 뒤 이어 1959년 에스코크, 1960년 묘조식품(明星食品)이 가세했다.

당시 라면은 아지스케면으로 면 자체에 양념을 가미한 것이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 쉽게 변질되는 단점이 있었다. 묘조식품은 이 점을 보완해 1961년 현재와 같은 분말스프를 첨가한 라면을 첫 생산했다. 이것이 오늘날 라면의 모태가 됐다. 일본에서 인스턴트 라면 산업은 급성장했다. 1971년에는 컵라면까지 등장하면서 조리과 후대의 간편함을 극대화했다.

1963년, 드디어 우리나라 토종 1호 라면이 탄생했다. 당시 라면 가격은 중

량 100g에 10원. 당시 커피 한 잔에 35원, 김치찌개가 30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그러나 초기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 건 '삼양식품'에 의한 '삼양(三養)라면'이 선 보였다. 그 당시 무엇보다 식량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전중운 회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전중운 회장은 일본에서 라면을 시식한 경험이 있던 것을 떠올려 라면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5만 달러를 정부로부터 빌려 일본 묘조식품의 라면 제조 기술 및 기계를 도입했다. 그런 경우에서 만들어진 것이 '즉석 삼양라면'이다. 기술 도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일본 묘조식품 오쿠이 기요스미(奥井清澄) 사장으로 부터 패전 후 극도로 약화된 일본경제를 일으키는 데 한국 특수가 큰 역할을 했다며 기술이전을 받았다.

생산라인 하나만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으니 2개 라인을 설치하도록 했다. 묘조식품이 도입하는 가격 그대로 납품을 받고, 기술지원은 무료로 해줄뿐 아니라 로얄티도 필요없다고 했

다. 삼양식품은 공기를 만들어 팔던 1961년 설립된 삼양제유가 모태다. 당시 삼양제유의 전중운 회장은 공기가 구호 물자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되자 일본을 왕래하면서 접했던 라면사업을 구상했다고도 한다.

당시 정부의 혼분식 장려정책도 라면이 널리 보급되는 데 기여했다. 1960년대 정부는 쌀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혼식(잡곡밥)과 분식(밀가루 음식)을 강제하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정책 덕분에 라면은 많이 팔릴 수 밖에 없었다. 그 실제 사례로 1969년에 한 해 동안 천 오백만 봉지가 팔렸다. 1970년에 들어서는 즉석 짜장면, 칼국수, 냉면 등의 다양한 제품이 나왔다. 또 대한민국 한식 문화에 알맞게 만든 된장라면도 출시되었다. 1982년 11월 17일 육개장 사발면의 출시를 시작으로 용기에 직접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컵라면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이후 다양한 종류의 라면이 출시되고 있다.

(재외동포신문)

гонка дронов, шоу шаров, концерты и мастер-классы: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климатический форум

Для гостей и участник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в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лиматический аспект»,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1-2 августа на дронапорте «Пушистый»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готовили большую 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Зрители увидят гонку дронов, выставку беспилотников и эко-транспорта. На площадках организуют лекции,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перформансы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островных художников и артистов.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ая улиц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с 9:00 до 20:00 в третьем павильоне. Гости смогу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ей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основе которой ягоды, дикоросы и морские продукты, а также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блюд.

Здесь же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выставки картин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и продукции остров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 рыба, морская грязь, кондитерские изделия, чай и др.

Гонка дронов пройдет на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е. 1 августа в 11:00-14:00 состоятся соревнования, в 15:00-18:00 выступят авиамodelисты. 2 августа в 11:00-14:00 – авиамodelисты, 15:00-18:00 – дроны. Гости увидят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на различных типах авиамodelей, групповые полеты.

С моделями беспилотников можно буде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в третьем павильоне Сахалин-Экспо 10:00 до 18:00. Здесь разместят дроны, применяемые для мониторинга эк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на островах, поиска свалок, обнаружения пожаров и др.

Около первого павильона разместят водородную выставку. Он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1-2 августа с 10:00 до 19:00. Гости смогут увидеть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за счет водорода создает электрическую энергию. Здесь же и около третьего павильона продемонстрируют модели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 спецтехнику, электрогазель, автомобили, электромобили и котел наружного исполнения.

Ярким событием форума станет открытие фестиваля «Воздух».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ждет шоу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Островитяне смогут совершить бесплатный подъем, насладиться вечерней программой светящихся шаров под музыкаль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показательными полетами, а также выступлениями авиамodelистов, увидеть высший пилотаж на авиамodelях и групповые полеты. Начало масшта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 18:00 1 августа и 12:00 2 августа.

Подробное расписа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и всех активностей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о дополнительно.

Отметим, форумы на Сахалине являются выезд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X, юбилейного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3-6 сентябр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первый регион в России, в котором проводится эксперимент по достижению нулевого баланса выбросов и поглощений парнико-

вых газов 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апробация механизма квотирования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Остров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лиматический аспект» участники и эксперты обсудят вопросы климата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а также достижен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лидерства Росс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и инновационной экономики.

Основные задачи и цели - экспертная проработка острых и значимых вопросов будуще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глерод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обмен опытом со странами, имеющими экспертизу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систем углерод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и торговли выбросами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ачестве площадки для обмена практическим опытом в ходе достижения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и центр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АТР.

Мероприятие планируют посетить более 1000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стран АТР и участников «БРИКС аутрич/БРИКС плюс»,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корпуса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в России, ведущие отраслевые эксперты, уче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и молодеж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егистрация доступна на сайтах: <https://xn----7sba6aldpkimh5bzh.xn--p1ai/>, <https://forumsakhalin.ru/islands-climate/>.

Сразу после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там же, на дронапорте «Пушистый», состо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беспилотных аппаратов всех сред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а 25-26 сентября -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форум». Оператор форумов – Фонд Росконгресс.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이 대회는 가족을 위한 화려한 스포츠 축제가 될 것이며 참가자들에게는 개인/단체 경주를 통해 메달·상장·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관객들을 위해 마스터클래스, 릴레이 이벤트도 마련된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ут первые город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роллер-спорт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26 и 27 июля пройдут первые город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роллер-спорту. Участвовать приглашают ребят от 4 лет и старше. При этом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не играет значения.

26 июля соревнования состоятс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около аттракциона "Американские горки", а 27 июля -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Это будет яркий спортивный праздник для всей семьи. Участников ждут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и командные заезды, памятные медали, грамоты и призы каждому призёру, а гостей -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весёлые эстафеты.

Сахалин '황금 편자' 대회 우승자 발표

아니와지역 오콘키마을에서 주지사배 제19회 전통 승마 대회 "사할린의 황금 편자"가 열렸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티몹스크, 노글리키, 포로나이스크, 샤호초르스크, 아니와, 홈스크, 유즈사할린스크의 29명의 기수가 화려한 레이스에 참여했다. 이들은 1,000m·1,400m·1,800m·2,000m를 경주하며 장애물 넘기, 조랑말 레이스에서 실력을 보여주었다. 대회 대상은 베로카 아르하로와 기수와 그의 말 지단에 돌아갔다.

"대회 '황금 편자'는 매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지역스포츠부와 스포츠 훈련 센터에 감사드립니다. 3년 연속으로 오콘키 마을에서 이 대회

를 개최하고 있지만 시작은 2000년대 중반 티몹스크 지역에서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 20회 '사할린의 황금 편자'를 키롭스크에 마을에서 다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대회 수석 심판 크세니야 표도로와가 밝혔다.

На Сахалине определ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соревнований "Золотая подкова"

XIX традицион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конному спорту на призы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олотая подкова Сахалина" прошли в селе Огоньки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Участниками зрелищных заездов стали 29 всадников из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Ноглик, Поронайска, Шахтёрска, Анивы, Холмск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Жокеи и их четвероногие напарники выступали в дерби на дистанциях 1 000, 1 400, 1 800 и 2 000 метров,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на мощность прыжка, а также в скачках на пони.

Главный приз "Золотой подковы Сахалина" ушёл к Веронике Архаровой и коню Зидану.

- "Золотая подкова" с каждым годом становится всё лучше и лучше. Спасибо за это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у спорта и центру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мы проводим эти соревнования в Огоньках, но своё начало в середине 2000-х они брали в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е. Поэтому м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юбилейную 20-ю "Золотую подкову Сахалина" вновь провести в селе Кировском, - поделилась подробностями главный судья соревнований Ксения Фёдорова.

Сахалин 졸업생 취업의 첫 걸음 지원

유즈노사할린스크 고용센터는 섬 대학과 직업교육기관 졸업생들을 위해, 특히 젊은 전문가들을 위해 일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액 무료이며, 직업으로 첫발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구직 지원. 지식, 기술, 성취를 정말 돋보이게 하는 이력서 작성. 상담, 현재 채용 및 개인 권장 사항.

· 개인 경력 서비스. 경력을 단계별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 많은 전문가와 고용주의 조언과 조언.

· 면접 준비. 교육 및 상담: 자신을 소개하고, 까다로운 질문에 답하고, 긴장을 극복하는 방법.

· 고용주를 위한 전문 오리엔테이션 투어. 잠재적인 일자리를 미리 알아보고 관심 있는 모든 질문 가능.

유즈노사할린스크 인사센터 신청은 "러시아 일자리" 플랫폼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또는 현장 (레닌거리 283a번지) 방문으로 가능하다. 고용 센터 보도부는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시면 43-70-28로 전화하십시오."라고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м выпускникам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первый шаг в профессию

Центр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дготовил для островных выпускников вузов и заведений СПО комплекс мер поддержки —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Эти сервисы абсолютно бесплатны, они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первый шаг в профессию.

· Поддержка в поиске работы. Составление резюме, которо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ыделит ваши знания, навыки и достижения. Консультации, актуальные вакансии и персональные рекомендации.

· Персональные карьерные сервисы. Советы и рекомендации от опытных экспертов 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выстроить карьеру шаг за шагом.

· Подготовка к собеседованиям. Тренинги и консультации: как презентовать себя, отвечать на каверзные вопросы и побороть волнение.

·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ые туры к работодателям. Познакомьтесь с потенциальным рабочим местом заранее и задайте все интересующие вас вопросы.

Обратиться в кадровый цент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ожно дистанционно, заполнив заявление на единой цифровой платформе "Работа в России" или прийти лично по адресу: ул. Ленина, 283а.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записи на консультацию обращайтесь по телефону: 43-70-28", — сообщают в пресс-службе центра занятости.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од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 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